

마을전자상거래 오픈마켓 '진격'

익산시, 시즌2 시장 진출... 온라인 쇼핑전문 '전국단위 전문평가 인력풀' 도입

익산시 마을전자상거래가 마케팅 라인업을 확대해 '온라인마켓, 시즌2' 시동을 걸었다.

7일 시는 온라인 쇼핑 전문인력풀을 갖춘 대행사를 선정하고 오픈마켓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등 온라인 판로개척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시는 900여 지역 농가 공급 참여와 다층권역 중앙유통거점센터 간 순회, 수집 물류시스템 구축 등 탄탄한 전자상거래 인프라를 바탕으로 '마켓팅'에 힘을 실어 온라인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마을전자상거래 유통전문가를 채용해 '원예농산물 상품기획형(MD) 판매' 등 다양한 시도로 30억 매출을 올린 경험을 토대로 올해는 온

라인 마케팅 전문인력 시스템을 갖추고 본격적으로 오픈마켓 시장에 진출한다.

오픈마켓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 제한을 풀고 농·특산물 분야 온라인 마케팅 경험이 뛰어난 대행사를 선정했다.

대행사 선정에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 인력풀제를 도입했다. 전국 대상공모로 모집된 전문위원 21명 중 추첨을 통한 7명의 전문가 제안서 발표평가를 통해 대행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선정된 대행사는 전남에 소재한 (주)블랙빈으로 다년간 쇼핑몰 대행 운영 및 라이브 방송 등으로 쌓은 노하우와 기존 오픈마켓 운영으로

확보된 인력풀을 보유하고 있다.

시는 이들 전문 대행사와 함께 온라인 쇼핑물 기획전 추진 및 수수료 할인, 주력상품 프로모션 등 농산물 홍보와 기존 오픈마켓 입점(네이버, 지마켓, 옥션, 11번가)에 추가로 판매처를 발굴·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선정 대행사는 익산시에 사업분점을 설치·운영해 입점농가 관리, 마케팅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타지역 업체로 자칫 농가들과의 유대관계가 소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할 예정이다. 분점 운영을 통해 농산물 상품 페이지 및 각종 관련 콘텐츠 제작, 다양한 SNS 채널 운영 등 다방면의 판매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익산시가 지역 농업·농촌발전을 이끌어 갈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농업인재 양성에 힘을 쏟는다.

라이브커머스 2개과정 신입생 모집

익산시, 농업·농촌발전 견인 농업인 대학생 육성

익산시가 지역 농업·농촌발전을 이끌어 갈 전문지식과 역량을 갖춘 농업인재 양성에 힘을 쏟는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선진 농업을 이끌 '제16기 익산농업인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익산농업인대학은 소비 트렌드에 맞춰 시설채소 심화반과 라이브커머스 2개 과정에 50명을 선발한다. 3월 입학의 시작으로 10월까지 8개월간 전문 이론교육부터 우수농가 벤치마킹, 실습까지 과정마다 20강 이상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특히 올해 운영되는 2개 과정은 기존에 운영되었던 시설채소반과 온라인마켓팅반의 심화과정으로 더욱 전문적 지식과 실용성 사례 중심의 현장 교육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설채소 심화반은 작물재배의 최적 환경과 재배기술, 수경재배, 스마트팜 등에 대한 교육을 라이브커머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농산물 판매와 유통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모집 대상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영농을 희망하는 예비 농업인이며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모집요강과 신청서는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신청은 이달 2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에서 방문과 우편 접수로 가능하며 서류와 면접심사를 통해 선발된 합격자는 다음 달 8일 개별 통보와 홈페이지 게재를 통해 전달된다.

시 관계자는 "익산농업인대학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140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해 지역 전문농업경영인 배출의 산실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 중심축인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동 농업인 상담소와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계(063-859-4947)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농업인 실용교육 올해 영농준비 시작

군산농업기술센터는 급변하는 농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10일부터 20일까지 12개 읍면 농업인 960명을 대상으로 2023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지난해 성과와 되돌아보고 새로운 영농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매년 초에 읍·면사무소, 지역농협 회의실을 순회하며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농기센터는 작별별 최신 연구개발 기술과 핵심 농작물 재배 기술 교육, 새로이 바뀌는 농업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한해 영농 계획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교육과정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고품질 저탄소 쌀 생산을 위한 재배 기술 보급에 초점을 두고 농업기술센터 자체 강사진을 구성해 동영상 제작, 당일 교육을 받지 못한 농가는 교육과정을 추가 개설 진행할 방침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시, 어업인 면세유 인상액 보조금 지원

군산시가 유가상승에 따른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기 위해 면세유 구입비를 지원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등에 따른 유류가격 상승으로 어업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22억 2천여만원을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해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하는 4개월의 어업용면세유 구입비 증 인상분에 대해 정책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어업용 면세유류카드를 발급받은 연근해·내수면 어업 허가어선, 어획물운반업등록어선, 어장·양식장 관리선, 양식업·수산종자생산업 등을 경영하는 어업인으로 신청자는 어업용 면세유 판매 지정기관인 군산시수협을 경유해 3월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228억원 도입 아동복지 '책임행정' 강화

취약계층별 아동복지서비스 확대...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보호종료아동 등 서비스 시행

익산시가 228억 예산을 투입해 아동복지 책임행정을 강화한다.

시는 보호자의 양육 부재로 법적보호가 필요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취약계층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요보호 아동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아동복지시설 8개소 운영 및 종사자 확보, 시설기능보강 등 68억7천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아동복지시설 중 공동생활가정 내 등록장애, 과잉행동장애(ADHD), 경

계신 지능아동이 거주하는 시설의 추가 종사자 1명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 여건 개선 및 서비스 질을 향상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결식 우려 아동 대상으로는 아동급식 단가를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하여 아동급식에 13억7,000만 원을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되는 자립수당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립정착금 지급액도 8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올해부터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을 위해 홀로서기 정서지원, 자립심배 멘토링, 자조모임 등 다양한 심리·정서 지원사업을 추진해 지역에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한다.

이 밖에 보편적 아동복지 차원으로 양육환경 지원에 총 132억9,400만원을 투입해 만 8세 미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정현을 시장은 "지역에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보호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서비스연계 및 후원발달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훈 기자

군산 금강미래체험관, 소속 강사 역량 강화로 체험프로그램 운영 준비

군산시 금강미래체험관(구, 철새조망대)은 올해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들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2주간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강미래체험관은 지난 2019년부터 체험관 활성화를 위해 기후변화, 해양쓰레기, 물, 자원순환, 신재생에너지 이렇게 다섯가지의 주제를 선정해 금강미래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강사 인력풀 또한 꾸준히 확보해 현재 활동강사는 41명으로 이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같은 시간에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빈번 교육이 가능할 정도의 인원이다.

올해 상반기 강사교육은 학교 출강 프로그램인 초·중등 미래교실의 주제별 교육인을 강사 간 토론을 통해 작성하고, 강의 시연을 통해 내용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또한 강의에 직접 활용하고자 군산 폐자원에너지화시설과 공공하수처리장에 견학하는 과정도 마련되었다.

체험관은 이번 교육에서 작성된 교육안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보완한 후 오는 4월부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며, 프로그램 신청방법, 일정 등은 금강미래체험관 SNS와 홍보공문을 통해 공지한다. 군산교육지원청과 연계해 운영하는 찾아가는 초·중등미래교실 외에 별도의 환경교육을 원하는 학교는 체험관에 문의하면 된다. /*군산=이재훈 기자

익산시, 저소득층 주택 리모델링 사업 신청·접수

익산시가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저소득층 주택 개·보수를 지원한다.

시가 추진하는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노후주택을 개·보수해 에너지 절감(그린 리모델링), 안전, 건강, 위생 생활 불편을 해소한다.

자가 주택을 우선으로 선정하며 임대주택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업대상자에게 3년간 의무적으로 임대해야 한다.

시는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



133가구에 가구당 최대 500만원까지 주택 개보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전용 손잡이, 방범안전시설, 지붕 개량, 주방·화장실 개량 도배, 장판, 전기 등 주거안정과 에너지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